

리만다양체에서 사영공형반대칭접속의 몇가지 성질

허달윤, 박복이

선행연구[1]에서는 리만다양체에서 레비-찌비타접속과 공형동등인 공형반대칭접속을 정의하고 그 성질을 밝혔으며 그것에 기초하여 레비-찌비타접속과 사영동등이고 공형동등인 사영공형반대칭접속이 존재한다는것을 증명하였다. 또한 선행연구[5]에서는 사영공형대칭접속은 레비-찌비타접속 그자체뿐임을 밝혔다.

선행연구[2]에서는 통계다양체에서의 사영공형변환과 그것에 관한 불변량을 고찰하였다.

또한 선행연구[3, 4]에서는 사영반대칭접속이 정의되고 사영반대칭접속변환에 관한 불변량이 고찰되었다. 선행연구[6]에서는 리만다양체에서 대칭접속들사이의 등곡률성문제가 연구되었으며 선행연구[7]에서는 리만다양체에서 임의의 비계량접속에 대한 측지선은 최소길이를 가진다는것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되었다.

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리만다양체에서 비계량접속의 한 형태인 사영공형반대칭접속의 성질을 고찰하고 그것에 관하여 측지선이 최소길이를 가지는 곡선임을 증명하였다.

리만다양체 (M, g) 에서 리만계량 g_{ij} 와 어떤 $\sigma(x) \in C^\infty(M)$ 에 관한 계량의 공형변환

$$g_{ij} \rightarrow \bar{g}_{ij} = e^{-2\sigma} g_{ij} \quad (1)$$

와 어떤 1-형식 π 가 있어서

$$\bar{\nabla}_k \bar{g}_{ij} = 0, \quad \bar{T}_{ij}^k = \varphi_j \delta_i^k - \varphi_i \delta_j^k \quad (2)$$

를 만족시키는 접속 $\bar{\nabla}$ 를 공형반대칭접속이라고 한다.[1] 여기서 \bar{T}_{ij}^k 는 공형반대칭접속 $\bar{\nabla}$ 의 코임플렉스 성분이고 φ_i 는 1-형식 π 의 성분이다.

공형반대칭접속 $\bar{\nabla}$ 의 접속결수 $\bar{\Gamma}_{ij}^k$ 는

$$\bar{\Gamma}_{ij}^k = \left\{ \begin{matrix} k \\ ij \end{matrix} \right\} - (\sigma_i \delta_j^k + \sigma_j \delta_i^k - g_{ij} \delta^k) + \varphi_j \delta_i^k - g_{ij} \varphi^k \quad (3)$$

이다. 여기서 $\left\{ \begin{matrix} k \\ ij \end{matrix} \right\}$ 는 크리스토펠기호이고 $\sigma_i = \partial_i \sigma$ 이다.

리만다양체 (M, g) 에서 레비-찌비타접속 $\overset{\circ}{\nabla}$ 와 사영동등한 사영반대칭접속 $\overset{p}{\nabla}$ 는 어떤 1-형식 ψ 와 π 에 대하여 접속결수가

$$\overset{p}{\Gamma}_{ij}^k = \left\{ \begin{matrix} k \\ ij \end{matrix} \right\} + \frac{1}{2} (\psi_i \delta_j^k + \psi_j \delta_i^k + \varphi_j \delta_i^k - \varphi_i \delta_j^k) \quad (4)$$

로 표시된다. 여기서 ψ_i 는 1-형식 ψ 의 성분이다.[1, 4]

리만다양체 (M, g) 에서 레비-찌비따접속 $\overset{\circ}{\nabla}$ 과 사영 동등이고 공형 동등인 반대칭접속으로 되는 사영공형반대칭접속 ∇ 는 $\bar{\nabla} = \overset{\circ}{\nabla}$ 인 접속으로서 접속결수가

$$\Gamma_{ij}^k = \left\{ \begin{matrix} k \\ ij \end{matrix} \right\} - \sigma_i \delta_j^k \quad (5)$$

로 된다.

이 경우에 식 (3), (4)로부터 $\varphi_i = \sigma_i$, $\psi_i = -\sigma_i$ 이다.

1. 사영공형반대칭접속의 성질

정의 1 리만다양체 (M, g) 에서 레비-찌비따접속 $\overset{\circ}{\nabla}$ 과 사영 동등하고 공형 동등한 접속 ∇ 를 사영공형반대칭접속이라고 부른다.

사영공형반대칭접속 ∇ 의 접속결수 Γ_{ij}^k 는 식 (5)에 의하여

$$\Gamma_{ij}^k = \left\{ \begin{matrix} k \\ ij \end{matrix} \right\} - \sigma_i \delta_j^k \quad \text{또는} \quad \Gamma_{ij}^k = \left\{ \begin{matrix} k \\ ij \end{matrix} \right\} - \varphi_i \delta_j^k.$$

결국 사영공형반대칭접속 ∇ 는 계량의 공형변환 (1)에 관하여

$$\nabla_k g_{ij} = 2\sigma_k g_{ij}, \quad T_{ij}^k = \sigma_j \delta_i^k - \sigma_i \delta_j^k \quad (6)$$

를 만족시키는 반대칭비계량접속이다.

정리 1 리만다양체 (M, g) 에서 사영공형반대칭접속 ∇ 는 레비-찌비따접속 $\overset{\circ}{\nabla}$ 과 등곡률성을 가진다.

정의 2 리만다양체 (M, g) 에서 두 접속 $\nabla, \bar{\nabla}$ 에 대하여 그것들의 접속결수 Γ_{ij}^k 와 $\bar{\Gamma}_{ij}^k$ 가 늘 같으면 즉 $\bar{\Gamma}_{ij}^k = \Gamma_{ij}^k$ 이면 접속 ∇ 와 $\bar{\nabla}$ 는 서로 동등하다고 말한다.

정리 2 리만다양체 (M, g) 에서 계량의 공형변환 (1)에 의하여 정의되는

$$\bar{\nabla}_k \bar{g}_{ij} = 0, \quad \bar{T}_{ij}^k = \sigma_j \delta_i^k - \sigma_i \delta_j^k \quad (7)$$

를 만족시키는 공형반대칭접속 $\bar{\nabla}$ 는 사영공형반대칭접속 ∇ 와 동등하다.

정리 3 리만다양체 (M, g) 에서 레비-찌비따접속 $\overset{\circ}{\nabla}$ 에 관한 측지선의 접벡토르를 $\overset{\circ}{X}$, 사영공형반대칭접속 ∇ 에 관한 측지선의 접벡토르를 X 라고 하면 $\|X\| = \|\overset{\circ}{X}\|$ 이다. 여기서 $\|X\|^2 = \bar{g}(X, X)$ 이다.

증명 $\overset{\circ}{\nabla}$ 와 ∇ 에 관한 측지선의 방정식이 각각 다음과 같다고 하자.

$$\frac{d^2 x^k}{ds^2} + \left\{ \begin{matrix} k \\ ij \end{matrix} \right\} \frac{dx^i}{ds} \frac{dx^j}{ds} = 0 \quad (8)$$

$$\frac{d^2 x^k}{dt^2} + \Gamma_{ij}^k \frac{dx^i}{dt} \frac{dx^j}{dt} = 0 \quad (9)$$

여기서 s, t 는 각각 $\overset{\circ}{\nabla}, \nabla$ 에 따르는 측지선의 표준보조변수이다.

그런데 $\frac{d^2x^k}{dt} = \frac{dx^k}{ds} \frac{ds}{dt}$, $\frac{d^2x^k}{dt^2} = \frac{d^2x^k}{ds^2} \left(\frac{ds}{dt}\right)^2 + \frac{dx^k}{ds} \frac{d^2s}{dt^2}$ 이므로 이것을 식 (9)에 넣으면 $\left(\frac{d^2x^k}{ds^2} + \left\{ \begin{smallmatrix} k \\ ij \end{smallmatrix} \right\} \frac{dx^i}{ds} \frac{dx^j}{ds} \right) \left(\frac{ds}{dt}\right)^2 + \frac{dx^k}{ds} \left(\frac{d^2s}{dt^2} - \frac{d\sigma}{dt} \frac{ds}{dt}\right) = 0$ 이다. 여기서 $\frac{d\sigma}{dt} = \sigma_i \frac{dx^i}{dt}$ 이다.

$\frac{dx^k}{ds} \neq 0$ 과 식 (8)을 이용하면 $\frac{d^2s}{dt^2} - \frac{d\sigma}{dt} \frac{ds}{dt} = 0$ 이며 이것을 적분하면 $\ln \frac{ds}{dt} = \sigma + c$ 이다.

$\sigma|_{t=0}, \frac{ds}{dt}|_{t=0} = 1$ 이라고 하면 $c=0$ 이므로 $\frac{ds}{dt} = e^\sigma$ 이다. 즉 $s = \int_0^k e^{\sigma(x(t))} dt$ 이다.

그러므로 식 (1), (2)로부터 정리 2에 의하여

$$\|X\|^2 = \bar{g}(X, X) = \bar{g}_{ij} \frac{dx^i}{dt} \frac{dx^j}{dt} = e^{-2\sigma} g_{ij} e^\sigma \frac{dx^i}{ds} e^\sigma \frac{dx^j}{ds} = g_{ij} \frac{dx^i}{ds} \frac{dx^j}{ds} = \|\dot{X}\|^2.$$

(증명 끝)

2. 사영공형반대칭접속에 따르는 측지선의 변분

(M, g) 에서 사영공형반대칭접속 ∇ 에 관한 측지선의 변분을 고찰하자.

이것은 정리 2에 의하여 식 (7)로 정의되는 공형반대칭접속 $\bar{\nabla}$ 에 대한 측지선의 변분 문제로 된다.

리만다양체 (M, g) 에서 $C: [\alpha, \beta] \rightarrow M$ 을 미분가능한 경로, $J = (-1, 1)$ 이라고 하고 $\forall t \in [\alpha, \beta], \forall \varepsilon \in J, V(t, 0) = C(t)$ 인 미분가능한 넘기기 $V: [\alpha, \beta] \times J \rightarrow M$ 을 C 의 변동, $V(\alpha, \varepsilon) = C(\alpha), V(\beta, \varepsilon) = C(\beta)$ 라고 하면 V 를 C 의 고유변동이라고 한다.

한편 식 (6)으로 정의되는 사영공형반대칭접속 ∇ 는 임의의 $X, Y, Z \in TM$ 에 대하여

$$\nabla_Z g(X, Y) = 2\pi(Z)g(X, Y), T(X, Y) = \pi(Y)X - \pi(X)Y$$

를 만족시키는 접속이다. 여기서 $\pi(Z)$ 는 참형식이다.

이 접속과 동등한 공형반대칭접속 $\bar{\nabla}$ 는

$$\bar{\nabla}_Z \bar{g}(X, Y) = 0, \bar{T}(X, Y) = \pi(Y)X - \pi(X)Y \quad (10)$$

를 만족시키는 접속이다. 여기서 $\bar{g}(X, Y) = e^{-2\sigma} g(X, Y), d\sigma = \pi$ 이다.

리만다양체 (M, g) 에서 경로 C 의 변동에 대한 길이는

$$L(\varepsilon) = \int_{\alpha}^{\beta} \|X(t, \varepsilon)\| dt \quad (11)$$

이다. 여기서 $\|X(t, \varepsilon)\| = g(X, X)^{1/2}$ 이며 $X(t, \varepsilon)$ 은 변동 V 의 접벡토르이다.

정리 3에 의하여 C 가 $\bar{\nabla}$ 에 관한 측지선이면 $\|X(t, \varepsilon)\|_{\varepsilon=0} = 1$ 이고 식 (7)에 의하여

$$Z \langle X, Y \rangle = \bar{\nabla}_Z X + \langle X, \bar{\nabla}_Z Y \rangle$$

이다. 여기서 $\langle X, Y \rangle = \bar{g}(X, Y)$ 이다.

정리 4 $C: [\alpha, \beta] \rightarrow M$ 을 사영공형반대칭접속 ∇ 에 따르는 측지선, $V: [\alpha, \beta] \times J \rightarrow M$ 을 C 의 고유변동, $X, Y \in TV$ 를 $X = V_k D_1, Y = V_k D_2 \left(D_1 = \frac{\partial}{\partial t}, D_2 = \frac{\partial}{\partial \varepsilon} \right)$ 라고 하자.

만일 Y 가 $\langle Y, X \rangle|_{\varepsilon=0}=0$, $\nabla_{D_1} Y|_{\varepsilon=0}=0$, $\nabla_{D_2} Y|_{\varepsilon=0}=0$, $\nabla_{D_1} Y|_{\alpha}=Y_{\beta}=0$ 이면

$$L'(0)=0, \quad L''(0)=\int_{\alpha}^{\beta} \|d\sigma(X)Y + d\sigma(Y)X\|^2 \Big|_{t=0} dt \geq 0.$$

증명 먼저 $L'(0)$ 을 고찰하자.

$$\text{식 (11)에 의하여 } L'(0)=\int_{\alpha}^{\beta} D_2 \|X\| \Big|_{\varepsilon=0} dt = \int_{\alpha}^{\beta} D_2 \langle X, X \rangle^{1/2} \Big|_{\varepsilon=0} dt = \int_{\alpha}^{\beta} \frac{\langle \bar{\nabla}_{D_2} X, X \rangle}{\|X\|} \Big|_{\varepsilon=0} dt.$$

$[D_1, D_2]=0$ 이므로 식 (10)으로부터

$$T(X, Y) = \nabla_{D_1} Y - \nabla_{D_2} X = \pi(Y)X - \pi(X)Y = d\sigma(Y)X - d\sigma(X)Y.$$

따라서 $\bar{\nabla}_{D_2} X = \bar{\nabla}_{D_1} Y - d\sigma(Y)X + d\sigma(X)Y$ 이므로

$$L'(0) = \int_{\alpha}^{\beta} \frac{\langle \bar{\nabla}_{D_1} Y, X \rangle - d\sigma(Y)\langle X, X \rangle + d\sigma(X)\langle Y, X \rangle}{\|X\|} \Big|_{\varepsilon=0} dt. \quad (12)$$

정리의 가정에 의하여 $\|X\|_{\varepsilon=0}=1$, $\bar{\nabla}_{D_1} Y|_{\varepsilon=0}=0$ 이고 $\langle Y, X \rangle|_{\varepsilon=0}=0$ 이므로

$$L'(0) = -\int_{\alpha}^{\beta} d\sigma(Y)|_{\varepsilon=0} dt = -\int_{\alpha}^{\beta} \frac{d\sigma(Y)}{dt} \Big|_{\varepsilon=0} dt = -\sigma(X)|_{\alpha}^{\beta} = \sigma(Y|_{\alpha}) - \sigma(Y|_{\beta}) = 0.$$

따라서 $L'(0)=0$ 이 증명된다.

다음으로 $L''(0)$ 을 고찰하자.

식 (12)를 리용하면 다음과 같다.

$$\begin{aligned} L''(0) &= \int_{\alpha}^{\beta} D_2 \left(\frac{\langle \bar{\nabla}_{D_1} Y, X \rangle - \pi(Y)\langle X, X \rangle + \pi(X)\langle Y, X \rangle}{\|X\|} \right) \Big|_{\varepsilon=0} dt = \\ &= \int_{\alpha}^{\beta} \left[\frac{D_2(\langle \bar{\nabla}_{D_1} Y, X \rangle - \pi(Y)\langle X, X \rangle + \pi(X)\langle Y, X \rangle)}{\|X\|} - \right. \\ &\quad \left. - \frac{(\langle \bar{\nabla}_{D_1} Y, X \rangle - \pi(Y)\langle X, X \rangle + \pi(X)\langle Y, X \rangle)^2}{\|X\|^3} \right] \Big|_{\varepsilon=0} dt \end{aligned} \quad (13)$$

정리 2로부터

$$D_2 \langle \bar{\nabla}_{D_1} Y, X \rangle = \langle \bar{\nabla}_{D_2} \bar{\nabla}_{D_1} Y, X \rangle + \langle \bar{\nabla}_{D_1} Y, \bar{\nabla}_{D_2} X \rangle, \quad \bar{R}(X, Y)Y = \bar{\nabla}_{D_1} \bar{\nabla}_{D_2} Y - \bar{\nabla}_{D_2} \bar{\nabla}_{D_1} Y$$

이므로 $\langle \bar{\nabla}_{D_1} \bar{\nabla}_{D_2} Y, X \rangle = D_1 \langle \bar{\nabla}_{D_1} \bar{\nabla}_{D_2} Y, X \rangle - \langle \bar{R}(Y, X)X, Y \rangle$ 이고 $\bar{T}(X, Y) = \bar{\nabla}_{D_1} Y - \bar{\nabla}_{D_2} Y$

로부터 $\langle \bar{\nabla}_{D_1} Y, \bar{\nabla}_{D_2} Y \rangle = D_1 \langle \bar{\nabla}_{D_1} Y + \bar{T}(Y, X), Y \rangle - \langle \bar{\nabla}_{D_1}^2 Y + \bar{\nabla}_{D_1} \bar{T}(Y, X), Y \rangle$ 이므로

$$D_2 \langle \bar{\nabla}_{D_1} Y, X \rangle = D_1(\langle \bar{\nabla}_{D_2} Y, X \rangle + \langle \bar{\nabla}_{D_2} Y + \bar{T}(Y, X), Y \rangle) - \langle \bar{\nabla}_{D_1}^2 Y + \bar{\nabla}_{D_1} \bar{T}(Y, X) + \bar{R}(Y, X)X, Y \rangle.$$

$$\text{정리의 가정을 리용하면 } \int_{\alpha}^{\beta} \frac{D_2 \langle \bar{\nabla}_{D_1} Y, X \rangle}{\|X\|} \Big|_{\varepsilon=0} dt = 0 \text{ 이다.}$$

한편

$$D_2(\pi(Y)\langle X, X \rangle) = \pi(\bar{\nabla}_{D_2} Y)\langle X, X \rangle + 2\pi(Y)(\langle \bar{\nabla}_{D_1} Y, X \rangle - \pi(Y)\langle X, X \rangle + \pi(X)\langle Y, X \rangle)$$

이다.

가정을 리용하면 다음과 같다.

$$D_2(\pi(Y) \langle X, X \rangle)|_{\varepsilon=0} = -2\pi^2(Y) \langle X, X \rangle \quad (14)$$

$$\begin{aligned} D_2(\pi(X) \langle Y, X \rangle) &= D_2(\pi(X)) \langle Y, X \rangle + \pi(X) D_2 \langle Y, X \rangle = \\ &= \pi(\bar{\nabla}_{D_2} Y) \langle Y, X \rangle + \pi(X) (\langle \bar{\nabla}_{D_2} Y, X \rangle + \langle Y, \bar{\nabla}_{D_2} Y \rangle) = \\ &= \pi(\bar{\nabla}_{D_2} Y) \langle Y, X \rangle + \pi(X) (\langle \bar{\nabla}_{D_2} Y, X \rangle + \langle \bar{\nabla}_{D_1} Y, Y \rangle + \pi(X) \langle Y, Y \rangle - \pi(X) \langle X, Y \rangle) \end{aligned}$$

$$D_2(\pi(X) \langle Y, X \rangle)|_{\varepsilon=0} = \pi^2(X) \langle Y, Y \rangle \quad (15)$$

$$(\langle \bar{\nabla}_{D_2} Y, X \rangle - \pi(Y) \langle X, X \rangle + \pi(X) \langle Y, X \rangle)^2|_{\varepsilon=0} = \pi^2(Y) \langle X, X \rangle|_{\varepsilon=0} \quad (16)$$

식 (14)–(16)을 식 (13)에 넣으면 식 $L''(0) = \int_{\alpha}^{\beta} \|d\sigma(X)Y + d\sigma(Y)X\|^2 \Big|_{t=0} dt \geq 0$ 이 얻어진

다.(증명 끝)

정리 4는 리만다양체 (M, g) 에서 사영공형반대칭접속 ∇ 에 관한 측지선이 내부에 공액점을 가지지 않으면 최소길이를 가지는 곡선임을 보여준다.

참 고 문 헌

- [1] Journal of **Kim Il Sung** University(Natural Science), 2, 2, 3, Juche102(2013).
- [2] T. Kurose; Interdisciplinary Information Science, 8, 1, 89, 2002.
- [3] P. Zhao; International Mathematical Form, 7, 341, 2008.
- [4] Zhao Pei Biao et al.; Chinese Quarterly Journal of Mathematics, 17, 4, 49, 2001.
- [5] A. P. Norden; Spaces with Affine Connection, Nauka, 2~231, 1976.
- [6] S. B. Edgar; Class. Quantum. Grav., 10, 2545, 1993.
- [7] F. Critchley et al.; Journal of Statistical Planning and Inference, 102, 229, 2002.

주체103(2014)년 2월 5일 원고접수

Some Properties of Projective-Conformal Semi-Symmetric Connection in a Riemannian Manifold

Ho Tal Yun, Pak Pom I

We newly defined projective conformal semi-symmetric connection that is protectively conformably equivalent to Levi-Civita connection in a Riemannian manifold, and discovered some properties of it.

Key word: projective conformal semi-symmetric connection